

축 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인스님들의 구도의 열정을 결실로 이루어 내는 『僧伽』29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년이면 30권이라는 성과를 이룩하게 될 『僧伽』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앙승가대학의 구성원들은 물론 사부대중의 고뇌와 열정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학인시절을 통해 쌓은 이와 같은 고뇌의 결과들은 수행생활 내내 큰 화두가 되고, 나아가 큰 서원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출가하여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행자라 할 수 없고, 큰 서원이 없으면 대승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의문이라도 놓치지 않고, 항상 탐마해가는 것은 인천의 사표가 되고자 하는 스님들이 언제나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僧伽』29호에 실린 학인 스님들의 고뇌의 결과들은 이후 여러분들의 수행 과정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근현대 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여러 어른 스님들의 탄신 100주년, 또는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경허 스님을 비롯하여 경봉스님, 성철스님 그리고 자운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장(宗匠)들께서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불교를 바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는 수많은 원력보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사바세계로 강림하여 불국토를 장엄할 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 역시 이 땅의 불교를 중흥하기 위해 함께 서원한 원력보살들의 현신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른들의 삶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은 바로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 본받으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큰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과 중

생구제를 위한 보살행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 화두를 놓지 않으시고, 일생동안 스스로를 낮추며 하심 하셨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조 이래로 출가수행자가 인천의 사표가 되기로 서원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천의 사표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신도이거나 아니거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유마거사의 말처럼 중생은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치유하는 양의(良醫)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을 끊임없이 참구하고 탐마해야 합니다.

훌륭한 성과를 얻으려면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올바르게 못하면 그 결과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 원대한 목표를 불가의 용어로는 서원(誓願)이라고 하고 세속의 말로는 비전(vis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서원은 크나큰 시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이 큰 서원의 갑옷을 입는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심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인시절의 순수함 위에 대지를 덮고도 남을 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모름지기 큰 성과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서원이 모여 종단과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종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인여러분이 더욱더 면학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僧伽』29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학교법인승가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